

병역판정검사 7월 27일~ 31일 휴무...8월 3일 재개

- 시설·장비 점검, 환경 정비 및 정전 대응 체계 집중 점검 -

- 병무청(청장 홍소영)은 오는 7월 27일(월)부터 7월 31일(금)까지 5일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(입영)판정검사를 중단하고, 8월 3일(월)부터 정상 운영한다.
- 이번 휴무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혹서기에 대비하여 병역판정검사 장비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, 안전하고 쾌적한 검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.
- 특히, 전원장애 발생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(UPS)를 비롯하여 냉방설비와 전기·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, 검사장 내·외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.
- 병무청 관계자는 “혹서기 휴무기간에는 병역(입영)판정검사 검사 통지를 제한하였으나 착오로 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검사일자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 <끝>

담당 부서	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	책임자	과 장	강진호 (042-481-2913)
		담당자	서기관	서혜연 (042-481-2918)